차 맛은 인간의 마음과 같다

화가의 차문화 엿보기 ③



김 호 석
수묵화가

> 차의 맑고 맑음은
>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 이상이며,
> 삶의 지향점이다.





찻잎을 딴 직후의 모습(사진 위)과 덖은 후 출하 직전의 모습. 억센 찻잎을 은은한 향이 있는 차로 만드는 과정은 마치 마음을 닦는 수행과정과도 같다.

'나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조선의 말과 글, 그리고 마음을 배웠다. 그것은 조선의 자연관과 우주관 그리고 윤리관 등을 익히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가장 조선적인 정신과, 사물에 내포된 생명의 느낌, 그리고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형상 너머의 공간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담(淡)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맑음은 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지금도 내가 연구해야 할 정신과 예술의 지향점이다.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맑음의 세계와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담(淡)이 얼마나 많은 정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고, 예술과 학문적 성취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느낀다.'

맑고 맑음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이다.

현실 사회가 혼탁하고 삶의 질이 낮을수록 맑음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특히 깨어있는 자유인에게 맑음은 삶의 지향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선비와 선승에게 맑음은 더욱 중요한 수양의 덕목이 되어왔다.

우리사회에서 맑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법정스님은 그 맑음을 무소유라 표현했다. 나는 맑은 것의 대표적인 것을 차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차가 그 성품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황차, 흑차, 보이차, 홍차 등이 있지만 한국의 차는 덖어 만든 작설차를 일반적으로 차라고 했다. 이 덖음 차는 다갈색의 맑은 빛을 가진 차이다.

이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면 우선 혀끝에서 맛을 느끼지만 결국 그 향이 머리로 올라가 정신을 맑게 해 준다. 이것이 차의 덕성 중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한다. 차를 제다하는 방식에서 덖음이 아닌 발효로 하게 되면 몸에 이로움을 줄지 모르나 가장 정신을 맑게 해 주는 것이 한국의 덖음 차이다.

정신을 맑게 하면 무엇이 좋을까.

우선 정신이 맑으면 흐리고 탁한 것을 구분 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혼탁하고 흐린 것이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맑음을 통해 혼란을 방지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가 있다. 맑음이 필요한 이유이다.

선비는 수신을 완성해 보국하고 공민을 위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군자의 도이다.

선승은 자기를 완성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해탈이 목표이다.

두 집단 모두 이상은 동일하다. 그것은 맑음을 토대로 이룩할 수 있다. 그만큼 맑음은 공부하는 사람의 이상적 가치이다.

그러나 현 시대는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이 드물다. 지식인은 역사 발전에 퇴행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소신과 시대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양인의 양심이다.

나는 녹차를 마시면서 차가 가지는 덕성과 그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차나 그림이나 모두 지향하는 세계는 맑음이다. 그 점에서 차와 수묵화는 지향점이 유사하다. 맑음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지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검박을 실천한다. 검박은 최소한의 삶의 형태이다.

녹차가 맑다는 것은 티 없이 깨끗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맑음은 제 빛깔을 담담하게 드러내면서 본연의 가치를 선명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녹차를 우려내는데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 굳이 온도로 말하자면 약93 °c 정도이고 시간은 25초 전후다. 이렇게 뜨거운 물로 우려야만 녹차 특유의 생기가 되살아난다. 물론 생취가 압권이지만 고요 적조함도 함께 한다. 차는 섬세하다. 뜨거운 물을 통해 현현하여 자기를 표현한다. 녹차는 녹차다운 맛과 향을 가질 때 그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최고의 차 맛을 이야기 할 때 현묘하다고 말한다. 차에서 생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죽은 차이다. 그 맛은 느껴본 자만 안다.

녹차는 살아있다. 나는 하루를 녹차로부터 시작한다. 아침의 경우 딱 한번만 우려 마신다. 이렇게 한번만 우리는 이유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예술적 이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묵화에서 한 번 붓질로 모든 것이 시작이자 끝인 경계를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다. 차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는 것에 만족하는 이유는 차가 지니는 정신의 가치를 존중해서이다. 담박이라는 최고의 맛을 구했으면 그 다음의 것은 구차하다. 수묵화도 마찬가지다.

녹차는 조화의 극단이다. 덖을 때 중화를 어떻게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한번 덖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축약의 정신은 극단의 경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에 완전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감과 단호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는 어쩌면 녹차가 가지는 궁극의 정신일지 모른다. 그것은 칼날의 정신과 같이 더하지도 뺄 수도 없는 경지다. 더하면 칼날이 넘어가고 모자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그런 최상의 상태를 말이다.

녹차는 정신이다. 뜨거운 녹차 물이 입에 머물면서 먼저 입천장을 뜨겁게 자극하는데 이때 형언 할 수 없는 기운을 느낀다. 차에서 생명은 허브향이다. 차의 기운은 차를 입에 머금고 있을 때 환하고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은 희열이다. 그러면서 이 환하는 느낌이 바로 머리로 전달되어져 이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실감한다. 그것은 뜨거운 물을 마셨을 때와 전혀 다른 경험이다. 차는 결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녹차는 생성 변화한다. 뜨거운 찻물이 입천장과 혀의 돌기를 자극한 목을 타고 내려간다. 이때의 몸은 고아한 향기가 맴도는 생성과 변화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서 머리가 명징해 진다. 더불어 등줄기가 훈훈해 지면서 이내 땀이 맺힌다. 나는 이것을 인체의 순환 원리 중 독맥이 살아 숨쉬는 기(氣)의 흐름으로 이해했다.

녹차는 골기가 생명이다. 나는 한번 덖은 차와 여러 번 덖은 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명차라 거론되는 녹차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번 덖어 완성한 차 맛이 궁금했다. 더욱이 이 차는 일탕법을 주장하고 있다. 혹 한번 덖었을 때 발생 할 약점을 숨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갔다.

그래서 먼저 여러 번 우려 맛을 보았다. 우리는 숫자가 증가 할수록 색과 향은 옅어 졌지만 야생의 살아있는 기운은 여전했고 동시에 부드러웠다. 뜨거운 물을 부어도 떫은맛이 지나치지 않은 것은 대단했다. 차 잎의 산지에 대한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덖고 건조하는 방식을 적용시켰을 때 가능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5번 이상 덖어 만든 차가 궁금했다. 여러 번 우려 마셔도 본래의 맛과 색을 잃지 않았다. 맛은 부드럽고 온화했다. 따라서 순화된 성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날 선 야생의 기운은 느끼기 어려웠고 뼈대 같은 골기가 없는 게 아쉬웠다. 특히 여러 번 덖은 차는 녹차 특유의 기세보다 가미된 것 같은 인공의 맛이 강했다. 녹차가 받아들이는 맛은 고소함이 아니라 떫고 쌉싸래한 맛이다.

녹차의 향은 고고하다. 차는 스스로 고매하다. 차는 모든 사물들과 잘 어울린다. 우유나 심지어 고기 요리에도 미각을 높이는데 일조한다. 그러면서 차향은 다른 향과 어울리지 못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향이 침투해 섞이면 그 향과 바로 묻혀 버린다. 적당히 중간이 없이 섞이는 순간 본래의 맛을 잃어버린다. 이런 현상은 차향이 섞이기를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하니까 바로 사라지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차향만은 혼자 있을 때 더욱 고고하고 은근하다.

나는 녹차의 특성과 덕목을 살펴보면서 먹과 물만으로 그리는 수묵화의 세계를 생각해 보았다.

수묵화는 검은 먹만으로 대상의 정신과 깊이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흑과 백, 이 두 가지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극단의 색이다. 이 절대성을 가진 두 극단을 넘나들며 한 붓에 그리는 그림이 수묵화이다. 수묵화 재료가 가지는 특성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요체만을 그릴 때 힘이 있다. 단순함은 상상력을 유발 시킨다. 해석의 폭이 넓으면서 현대성도 획득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묵화는 형상을 그리기도 하지만 비운 채로 놓아두는 여백을 중요한 조형어법으로 사용해 왔다. 여백은 물상 너머에 있는 무한세계를 생성시킨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성찰이다. 기다림이자 울림이다. 여백은 의도하지 않으면서 의도된 영원함이다. 그것이 바로 동양 회화 정신의 핵심이다. 말하지 않고 말하는 어법이다. 홍운탁월법이다.

좋은 차 맛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좋은 맛은 인간의 마음과 같다. 기계가 뛰어 넘을 수 없는 정신적 영역이 있다. 차는 만든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차라도 마실 때 마다 다르다. 이것은 마시는 사람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자면 예술 세계에서 지선은 장식성이 배제된 진실함에 있다. 순수함은 감동을 준다. 차에서 장식성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잡맛이 앞으로 돌출되거나 특정한 층위의 맛이 자신을 뽐내기 위해 드러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를 마실 때 마지막은 뜨거운 백차로 마무리한다. 차에 대해 또 다른 맛을 음미하는 순간이다. 백차를 마시는 이유는 단맛이나 쓴맛의 의미가 아니다. 다만 헤어짐이 아쉬워 백차 한잔을 끝으로 맑고 단맛의 여운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행위는 인생을 정리할 때 적으나마 자기가 일구어 놓은 재화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름다운 회향일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백차는 맑음을 오래도록 생각하게 하는 마지막 여운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가귀감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시송이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초발심자경문
예로부터 한문 문장의 흐름을 알아 제대로 그 뜻을 새기는 힘인 문리(文理)를 터득하기 위해 화엄경을 본 사람도 초발심자경문을 새로이 독송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발심자경문은 그 문장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구성이 치밀한 명문으로 꼽힙니다. 문리 터득에 도움을 주고자 이 초발심자경문은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한 것입니다. 또한 불도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사람의 체험을 통한 수행지침을 실어 놓았으니 신심과 발심을 더하는 살아 있는 수행지침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천 운 사 무령 합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103-35
전화 043)881-1358,881-1359 / H·P 010-4496-6060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